

독자와 함께

“식목일, 아이들에 나무 한그루 선물 어때요”

나무심기는 기후변화로부터 인류 생존위협 투자
자투리 공간 활용 도심녹지 조성에도 눈 돌려야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연간 목재 소비량은 약 2,940만㎥ (1999년 기준)에 이르며, 이를 연간 1인 소비량으로 환산하면 0.63㎥나 된다고 한다.

의 날(みどりの日), 중국은 3월 12일 '식목절', 독일은 4월 중 하루 '나무의 날', 북한도 3월 2일 '식목절'로 정해 매년 나무심기를 진행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237그루를 베고 몇 그루의 나무를 심고 있을까?

나무심기를 국가기념일로 정하기까지 하며 진행되는 것은 단지 나무심기가 기념 등을 위한 행사로 적합해서만도, 팥감과 종이 등 생활에 필요한 자원을 생산하기 위한만이 아니다.

안타깝게도 1년에 한 그루의 나무도 제대로 심지 못하고 있다. 우리에게 나무심기는 아련한 추억 속에 존재할뿐이다. 그러나 나무 심는 날로 각인(?)된 4월 5일 '식목일'마저 2006년부터는 공휴일에서 제외됨에 따라 나무심기는 더더욱 남의 일처럼 되고 있다.

나무를 심고 가꾸는 것은 인류의 생존을 위한 최소의 토대를 만드는 투자라는 인식으로 전환되고 있다. 기후변화로부터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초보적이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나무심기는 우리의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투자로 인식되고 있다.

'식목일'은 올해로 65번째를 맞이한다. 식목일을 4월 5일로 정한데는 24절기 중 봄농사를 준비한다는 청명(淸明)과 한식(寒食)무렵이 나무심기에 적합하고, 신라가 삼국통일의 위업을 달성한 날(음력 2월 25일)이자, 조선 성종(成宗)이 선농단(先農壇)에서 직접 밭을 일군 날(1343년)과도 연관이 있다고 한다.

광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각 지자체들도 앞다퉀 '천만그루 나무심기' 등 식재사업에 진행하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우리의 식목일과 같은 날을 정하고 나무를 심고 있다. 미국은 3월 22일 '나무의 날'(Arbor Day), 일본은 4월 29일 '녹색

대중적인 식재프로그램들과 함께 생활 속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도심 생활 속 녹지조성에 눈을 돌려야 할 것이다.

세계의 여러 나라들도 우리의 식목일과 같은 날을 정하고 나무를 심고 있다. 미국은 3월 22일 '나무의 날'(Arbor Day), 일본은 4월 29일 '녹색

대표적인 예로 폐선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푸른길공원'이 있다. 광주역~남광주역~효천역의 구도심을 지나는 철길을 걷어내고 공원



지난해 3월 폐선부지에서 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주최로 열린 '내나무 심기' 행사 모습. (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제공)

화하고 있는 푸른길은 도심 생활 속 공원으로 광주도심의 '녹색 척추'는 모양과 역할을 하고 있다. 기차길을 활용해 폭이 5~25m로 좁고 길이가 10.8km로 길어 도심내 유휴터로서 뿐 아니라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로서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광주천을 건너는 다리까지 개뽕을 앞두고 있다.

푸른길의 나무 한그루 한그루는 시민들이 직접 식재에 참여해 더욱 의미가 깊고 저마다의 나무에 사연이 있다. 그래서 '시민참여'는 푸른길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하다. '푸른길100만그루현수운동'과 '내나무 심기'를 통해 약 4여천원의 현수금이 조성되고 1,500여 가족과 기업 및 단체의 참여로 푸른길 내 '참여의숲'이라는 이름의 자그마한 숲도 조성했다. 지난 1월말 광주역~조선대구간 2.9km 가 조성됨에 따라 옛 남광주역구간(2010년말 준공예정)를 제외한 전구간이 조성되고 옛 남광철교를 활용해

시민의 심은 한그루 한그루의 나무가 폐선부지를 공원으로 만들고, 주변 주민들의 생활에까지 영향을 주고 있다. 푸른길에서 광주전역으로 시민들이 심은 나무들이 펼쳐져 나갈것을 기대해본다. 이렇게 펼쳐져 나가는 나무들이 광주도심을 덮고 작은 숲들로 연결되고 얽혀 광주도심이 하나의 커다란 숲으로 지도에 표시되길 바란다.

광주시를 비롯한 전국의 각 지자체들도 앞다퉀 '천만그루 나무심기' 등 식재사업에 진행하고 있는 것도 다름 아닌 생존을 위한 투자로 풀이될 수 있을 것이다.

오는 5일 식목일에는 아이들에게 나무 한그루 선물해주시길 것을 권한다.

대표적인 예로 폐선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하고 있는 '푸른길공원'이 있다. 광주역~남광주역~효천역의 구도심을 지나는 철길을 걷어내고 공원

푸른길은 조성에서보다 앞으로 관리하고 가꾸는데 시민들의 더 많은 손길을 필요하다. 문의 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062-514-2444~5.

▲박상은·광주푸른길가꾸기운동본부 간사

클릭! 맛집



'검정 약콩'의 기막힌 변신

부드럽고 고소한 진짜배기 두부맛... 홍어애국도 별미

■광주시 동명동 '류상운흑두부'

자신의 이름을 거는 것은 맛에 대한 자신감 때문이다. 광주시 동구 동명동 154-118, 전남여고 뒷길의 명가류상운흑두부(업주 류상운)는 전통 기법으로 빚은 흑두부정식을 알한다.

흑두부는 '검정 약콩'(일명 쥐눈이콩)을 갈아 만든데 동맥경화, 고혈압, 당뇨 등의 예방과 억제효과가 있고 저칼로리 식품이어서 비만 예방에도 좋다.

철저히 전통의 기법을 따르는 것이 집 맛의 비법. 검정콩으로 두부를 만들 때에는 응고력이 약해 불과, 불, 시간을 잘 맞춰야 한다.

주인장이 손수 매일 새벽마다 콩을 갈아 두부를 만든다. 류씨는 지난 2005년 전통음식 보존대회에서 '검정 약콩 된장'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하기도 한 '검정콩 박사'다. 고향인 고흥 해안 지역에서 재배한 검정 약콩

만을 쓴다. 간수는 3년 묵은 신안 천일염을 쓰기 때문에 두부가 더욱 고소하고, 짜고 쓴맛도 전혀 없다. 가마솥에 콩을 삶고, 짓기를 반 나절 동안 반복해, 표면에 윤기가 흐르는 흑두부를 만든다.

존독존독해서 짓기라므로 집어도 쉬이 부서지지 않는다. 흑두부로 만들어 내는 요리도 다양하다. 홍어, 돼지고기, 목은지와 곁들여 먹는 흑두부 삼합, 두부에 달걀을 얹어 찜하고 콩을 간 뒤 야채를 넣은 부침 등 한결같이 정갈하다.

또 조기와 가오리찌, 생굴, 오리훈제 등은 두부의 단조로운 맛을 보충해준다.

점심에는 청보리알과 무청 시래기, 홍어를 넣고 푹 끓인 홍어애국을 추천한다. 푹 쏘는 맛이 달해 여성들이 먹기에도 좋다. 흑두부정식 1만2천원부터, 홍어애국 5천원. 문의 062-222-6444.

/글·사진=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홍어애국>



■작지만 소중한 이야기

“젊어서 못했던 공부를 하니 새로 태어나는 기분”

문흥 2동 '화·목서당' 박재구 훈장님 고맙습니다

광주시 북구 문흥2동 주민센터 화·목서당에 첫발을 디딜 때만 해도 한 문 공부를 잘 할 수 있을까 두렵기만 했는데 벌써 4년이라는 세월이 지났다. 가정일이며 직장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서당에 와서만 간신히 공부할 뿐인데도 콩나물예뻐 물이 스며들 듯이 차츰차츰 한자가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에 늦었다고 느껴질 때가 바로 도전할 때이다. 배움의 갈증을 풀기 위해 북구 정육동에서 오는 구순금(75) 씨는 젊어

서 못했던 공부를 하니 언제나 새로 태어나는 기분이며, 집이 멀어도 배우는 기쁨에 힘든지도 모르고 무엇보다도 치매 예방에 '서당 다니는 것이 특효약'이라 한다.

서당이 생길 때부터 5년 동안 총무 일을 맡고 있는 박공순(60)씨는 “집에서 소리 내서 명심보감을 읽으니 자녀들이 '장원급제하시겠다'며 우스갯소리를 한다”며 웃는다.

직장 다니며 서당을 다니는 유미옥(50) 씨는 “서당에 다녀오면 뭘가 부



박재구 훈장의 지도로 화·목서당에서 배움의 길을 걷고 있는 서당학생들이 한 자리에 모였다.

듯하고 하루가 성실하게 마무리 된 기분”이라고 이야기한다.

열심히 강의하는 박재구 훈장님 덕분에 초등학생부터 70대까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17명의 회원들이 열심히 배움의 길을 가고 있다.

현대를 살아 가는 세대를 일컬어 '가치부재'라 하지만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되돌아보며 자기반성과 성찰로 참된 삶을 바랄 수 있게 하는 계기를 마련한다. ▲이영심·광주시 북구 문흥동

Advertisement for 'G-FLOW' (G-FLOW) and '다이아몬드 大物' (Diamond Great Object). Includes text about skin care and diamond jewelry.

Advertisement for 'NTOOS' (NTOOS) featuring '사업자 모집(남·여)' (Business Recruitment) and '무지본 / 무점포 / 고소득' (No office / No store / High income).

Advertisement for '남성성기능강화제' (Men's Sexual Function Strengthening Supplement) with text about health benefits and contact information.

Advertisement for '토지 매매' (Land Sale) in Naju, listing details like location, area, and price.